

성명	김나연	수험기간	2023.03~2025.07.
학교	연세대학교	전공	심리학과
키워드	생동차 비이공계 전공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62기 변리사시험 합격자 김나연입니다.

진입계기-

저는 2022년에 대학교 1학년 생활을 마친 뒤, 법학에 대한 관심으로 로스쿨을 고민하던 중, 동시에 이과 분야에도 흥미가 생겨 복수전공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2023년 초에 변리사라는 직업과 시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빨리 본격적으로 준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비이공계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른 나이인 21살에 변리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비이공계 전공으로서 변리사 시험 진입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자연과학을 접하며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 저의 1차 시기 공부 내용이, 2차 시험 동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께 2차 시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부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100점	90점	72.5점

-민법- <점수: 100점> (첫 1차:82.5점 -> 두 번째 1차: 100점)

【강의 및 교재】

강의: 김동진 강사님 기본강의, 중급강의, 민법공방연습 문제풀이강의 (첫 1차), 최신판례강의

교재: 김동진 강사님 민법공방, 민법공방연습

【시기별 공부】

첫 번째 1차 (2023-2024) -82.5점

기본강의를 3월에 수강하였고, 중급강의, 문제풀이강의를 각 강의의 개강시기와 큰 차이 없는 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민법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으나, 후반부에 자연과학으로 인해 멘탈 관리에 실패하고 전반적인 법 과목과 자연과학 간 공부 밸런스를 놓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1차 (2024-2025) - 100점

1~3월	4~6월	7~9월	10~12월	1~2월
첫 1차 불합격 후 휴식		7월) 민법공방1회독 9월) 민법공방 2회독 + 민공연 1회독	10월) 민법공방 2회독 완료 + 민공연 2회독 11월) 민법공방 3회독 + 민공연 12월) 민법공방 + 민공연 회독	1월, 2월 - 민법공방+ 민공연 회독 (총 민법공방 약 5회독/ 민공연 4회독) + 모의고사, 기출문제

【회독 방법】

다시 1차를 두 번째 준비하며 첫 회독은 복기와 눈에 익히기가 목표였습니다. 저는 7월에 처음 다시 기본서를 보았을 때, 약 3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1차 시험 준비 당시 첫 1차와 달랐던 점은, 목차를 계속 확인해가며 읽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배경화면을 정리할 때 폴더를 잘 만들어 두면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민법 공부를 할 때에도 머릿속에서 그런 폴더가 바로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크게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 각각의 장과 세부 목차로 구분되어 내용을 저장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회독을 할 때는 하나의 대목차가 끝날 때마다 맨 앞의 목차를 확인하며,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의식적으로 간략히 훑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민법공방연습 교재의 경우, 3-4회 풀었는데, 자꾸 헛갈리는 선지들은 따로 아이패드에서 옮겨 적어놓고, 정리해서 여러번 보았습니다. 마지막 선지는 모아서 정리자료를 만들면, 시험 직전에 간결히 머리에 꽂고 시험장에 들어가기에 편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0점> (첫 1차: 82.5점 -> 두 번째 1차: 90점)

【강의 및 교재】

특허법 - 첫 1차 기간 기본강의 수강 / 2번째 1차 기간 강의 수강 X

상표법 - 첫 1차 기간 기본강의 수강 / 2번째 1차 기간 복기용으로 핵심정리강의 수강

디자인보호법 - 첫 1차 기간, 2번째 1차 기간 모두 김웅 변리사님 기본강의 수강 + 김웅 변리사님 교재 활용했습니다.

【특허법】

기본서를 한 번 쪽 회독 한 뒤, 기출문제집, 조문 암기를 병행하며 기본서 회독을 반복했습니다. 첫 1차와 달리 한 부분은 (1) 조문 빈칸자료를 활용한 점 (2) 기출문제 외에 객관식 문제집도 추가적으로 풀었던 점입니다.

조문 빈칸자료를 활용한 공부는 아주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객관식 문제집은 지엽적인 문제가 많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출 외 객관식은 여력이 된다면 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나, 절대적으로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상표법】

첫 1차 기간에는 기본강의를 수강한 뒤 기본서 회독하고, 조문집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당시 문제는 기출문제만 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 2차 기간에 복기를 위해 짧은 버전의 개념강의를 수강하고, 이후 기본서와 조문 빈칸 자료를 반복했고, 동시에 기출+객관식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가능한 만큼 반복하려고 했습니다. 공부 방법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마찬가지로 강의 + 기본서 + 기출문제로 공부했습니다.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고, 그에 맞게 기본서를 공부하는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조문도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보고 암기했지만, 특허법과 상표법만큼 꼼꼼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72.5점 > (첫 1차:57점->두 번째 1차:72.5점)

【강의 및 교재】

네 과목 모두 첫 번째 1차 기간에 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두 번째 1차 전에 화학은 유기화학 특강을 추가 수강하였습니다. 지구과학의 경우, 기본강의를 다시 수강하고 박준희 강사님의 파이널 강의도 추가 수강했습니다.

【물리】 (6/10)

물리는 제가 첫 1차 때 가장 크게 포기한 과목이라, 3월부터 전 범위 개념 회독과 정리본 제작 + 문제 풀이 전범위 1회독을 상반기에 학기병행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이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첫1차에 불합격한 뒤 2차 공부를 하며 부진 등 준비를 하지 않고, 물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접했을 때 방대하게 느껴지는 범위에 압도되지 말고 간결하게 만들어 문제 풀이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한 공식만 담아서 단원별 정리본을 만들었고, 나중에 그것만 속 보고 문제풀이 무한 돌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만든 공식 정리본은, 역학은 6장, 전자기학은 10장, 열역학 2장, 파동학광학 9장, 현대물리학 7장 이었습니다. (뒤에 정리본 사진을 1-2장 정도 첨부하겠습니다.) 딱 이 정리본과 그 안의 공식들만 반복하며 문제를 계속, 최대한 많이 풀어보며 체화시켰습니다.

【화학】 (7/10)

화학 역시 처음 접하면 범위가 방대하게 느껴집니다. 물리와 마찬가지로, 단원별 정리본을 만들어서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만 정리했고,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화학 정리본은 9개 단원으로 나뉘었는데, 단원별로 1-3장 정도로 매우 얇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화학에서 더 중요한 점은, 단원별 중요도와 비중을 잘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간을 많이 아가가는 문제가 있고, 공부한 내에서 어차피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모든 범위를 챙겨서 공부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시험 1달쯤 앞두고서는 분명히 단원별로 선/후순위를 정해주는게 좋습니다.

풀어도 늘 계산이 꼬이는 단원, 어렵지만 꼭 한 문제씩은 나오는 단원, 출제가 잘 안되는 단원들이 다 하나씩 있을텐데, 그에 맞춰 1순위(읽든 나오면 무조건 맞출 단원), 2순위(개념과 공식은 제대로 안고 가볼 것, 풀이 시도), 3순위(개념으로 대강 풀 수 있는 것만) 같이 순서와 공부의 목표를 잘 설정해두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생물】 (7/10)

생물은 그냥 기본서 무한회독 + 문제풀이만 했고, 별도 정리본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리와 화학은 개념/공식의 체화, 적용 연습을 위해 문제 풀이를 하지만, 생물은 (1) '내가 잘 외웠나' 확인하기 위해 (2)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부분 체크를 위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기본서로 오면 강약조절이 더욱 쉬울텐데, 중요한 부분 위주로 먼저 암기하면서 기본서 쪽 읽고, 점차 부수적인 디테일을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

회독을 반복하다보면, 지엽적인 부분을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기실 수 있는데, 어느정도는 '어, 이거 그때 본

것 같은데?’라는 희미한 기억에 맡겨야 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느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계속 눈에 담고 익숙해지려고 하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과학】 (9/10)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과학에 흥미나 관심사가 맞지 않아 가장 심적인 거리감을 느끼는 과목이었지만... 자연과학 네 과목 중 가장 성적에 큰 도움이 되고, 꼭 10문제를 모두 챙겨야 하는 과목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강의 잘 듣고, 이해하면서 암기할 것 암기하고, 문제 푸는 연습까지 해보시면서 온전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과목의 경우 최대한 연습해도 10 문제를 다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지구과학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물리와 화학에서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기에, 더욱더 지구과학은 완벽히 챙겨가려 조금 지엽적인 부분까지 외우며 준비했습니다.

【자연과학 노베이스 분들께 드리는 말씀】

【첫 1차 실패의 원인】

저는 첫 1차 시험 때, 자연과학 각 과목의 기본강의를 듣는데 계획이 너무 늘어지게 되었고, 다시 물리로 돌아왔을 때 큰 막막함을 경험하며 반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리, 화학은 아무리 해도 시험 때까지 완성될 수 없다’ ‘노베이스였던 나는 아무래도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고, 자연과학에서 과락이 나오겠다는 생각에 그냥 다음 해 시험을 기억하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험을 몇 주 앞두고서 잠깐 화학을 보며 ‘그래도 딱 한 단원만 챙겨볼까’ 하며 하루 한 시간씩만 며칠 투자하니, 1-2문제를 더 맞출 수 있게 되었고, 하면 가능한 것이었다는 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 반포기 상태로 보낸 시간이, 내가 직접 스스로의 노력을 갖다 버린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멘탈이 많이 흔들렸고, 결국 막판에 자연과학과 법 과목 간 밸런스를 다 놓쳐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과락이 뜨거나 턱없이 안될거라 믿었던 그 해 1차 시험은 커트와 2-3점의 차이로 불합격했습니다.

*****[당부사항]*****

아마 첫 1차를 준비하던 제가, 반포기 상태가 아니라 끝까지 한 문제씩만 챙겨가며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해에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과생이었던 것이 불합격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을 제가 못하는 이유로 단순히 합리화 하는데 써먹고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합격하게 되면, 불합격 자체에 대한 아쉬움 보단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책으로 한동안 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과생이어서, 노베이스여서 불가능한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그냥 그 상황을 쉽게 합리화할 핑계가 늘 눈 앞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자연과학 노베이스라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내가 부족한 것을 합리화할 이유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는 시험이니,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기로 한 이상 결국 넘어야 하는 산이고, 또 1년 정도 열심히 투자하면 절대 넘지 못할 산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시기로 하는 비이공계 분들께서 저와 같은 과정을 겪고 힘들어하지 않으시길, 1차 시험을 빠르게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시간 관리】

(시험장에서의 시간관리) 물리, 화학은 어차피 전 범위를 풀어 맞출 생각을 하진 않았고, 생물, 지구과학이나 법 과목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기에 시간 문제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헛갈리는 건 일단 패스하고, 풀 수 있는 것 먼저 확실히 풀고 돌아와 남은 시간에 고민하고, 풀거나 찍기를 추천드립니다.

(수험기간 시간관리) 많은 분들이 자연과학은 꾸준히 하루 1-2시간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의 경우, 노베이스에서 하루 1-2

시간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법과목 시간을 줄이면 또 그것대로 불리한게 생기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 시라면 한두시간 정도의 전체 공부시간을 남들보다 더 확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루 1시간 정도. 아침에 30분 더 일찍 오고, 밤에 30분 더 늦게만 돌아가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니, 그렇게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

저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누적되는 피로감은 전부 카페인 음료로만 해결하다 보니, 막판에 가산 체력이 안 좋아졌고 컨디션이 완전히 악화된 적이 많았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게 또 컨디션에 적용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적어도 한 9-10월까지의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건강과 체력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학 정리본 예시] (화학/물리)

< 이상기체 법칙 >
 $PV = nRT$ (단위: n, T, R, P, V)
 * 몰리의 혼합법칙: $P_{tot} = P_1 + P_2, P_1 = \chi_1 P_{tot}$
 * 몰도 $\rho = \frac{PM}{RT}$
 * 기체 분자 운동론 (평균운동):
 * 평균 $\overline{v} = \sqrt{\frac{3RT}{M}}$
 * 평균 $\overline{v^2} = \sqrt{\frac{3RT}{M}}$
 * 기체 분자와 사의 평균속도 $\overline{v} = \sqrt{\frac{3RT}{M}}$
 * Van der Waals: ① 분자력, ② 인자-상수자 힘, ③ 수소결합
 P, Q, N (f, H, O, H, N, H, H, H, H)
 * Clausius-Clapeyron의 온도 의존성!
 $\ln \frac{P_2}{P_1} = -\frac{\Delta H_{vap}}{R} \left(\frac{1}{T_2} - \frac{1}{T_1} \right)$
 * 금속 고체의 결정구조:
 단위입방 (SC), 체심입방 (bcc), 면심입방 (fcc)
 1차 6, 8, 12; 2차 12, 6, 6
 * fcc와 hcp의 배위수 12
 * fcc와 hcp의 배위수 12
 * fcc와 hcp의 배위수 12

(2) 원형전류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① 자기장 방향: 오른손법칙
 ② 자기장 크기: $B = \frac{\mu_0 I}{2r}$
 (3)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 코일)
 ① 자기장 방향: 오른손법칙
 ② 자기장 크기: $B = \mu_0 n I = \mu_0 I \left(\frac{N}{L} \right)$
 * 자기 (쌍극자) 모멘트 (M)
 $M = N \mu$
 * 목이 세 원통형 코일 전류
 * 목이 작은 원통형 코일 전류
 * 전선이 받는 자기력
 (1) 전류가 받는 자기력
 자기력 크기: $F = I \Delta L B$
 자기력 방향: $F \parallel I \times B$
 (2) 직선전류 사이의 자기력
 직선전류 2개가 서로 받는 힘
 $F = k \frac{I_1 I_2}{r}$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53.66점	52점	55점	60점

-민사소송법- <점수: 53.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 이창한 강사님 기본강의, 사례 강의

이창한 강사님 2024년(전년도) 기초GS 강의, 실전GS A, 실전GS B

▪ **교재**

주교재: 이창한 강사님 민사소송법 암기노트

사용한 교재: 통합 민사소송법 (첫 회독시에만), 사례집(첫 회독시에만), 기출문제 핸드북 (기초GS 수강시)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24년도 기초GS		실전 GS A 온라인첨삭반	실전 GS B

【시기별 공부】

[1차 기간 공부 내용]

첫 1차를 불합격 한 뒤, 상반기에 복학하여 이창한 강사님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어 두면, 2차공부에 들어갈 때 바로 암기를 시작 수 있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강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 두 강의를 듣고 난 뒤에도 암기에 대한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1차 물리 (자연과학)공부, 19학점의 대학 수업, 민사소송법까지 병행하다보니, 머리에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1차 기간 민사소송법 공부에 대한 추천 여부]

최소한 기초GS 까지 수강할 여력이 된다면 추천하지만, 단순히 기본 사례강의만 듣는 것은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 한번 강의를 듣고도 오래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지만, 저의 경우 두 강의만 수강한 것이 실제 2차 시험 때 기억으로 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GS를 접해보아야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암기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감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능한 일정이 라면 유의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1차를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하는 것이 2차를 미리 공부하는 것보다 더 욱 중요하기에, 1차 준비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차기간 동안의 공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사례강의를 수강했었기에 다시 같은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으나, 2-3월과 4월에 통합 민사소송 법과 사례집을 한번 회독하는 시간을 각각 한 달씩 가졌습니다. 암기는 수반되지 못했고 곁핳기 방식이었기 때문에, 통상의 동차생들이 강의를 듣는 시간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기본강의를 다시 수강해야 하나 중도에 고민했 지만, 그 시점에 강의를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그냥 회독을 강행했습니다)

3월 초중반 쯤에 통합 회독과 병행하여 24년도 기초 GS를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이때 기초 GS는 그냥 답안을 완전히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터디카페에서 집에 가는 길에 한 문제씩 잡고 답안을 통암기하려고 했습니다.

4월은 사례집 회독을 했고, 5월에 이창한 강사님 실전 GS A를 온라인 첨삭반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책을 보지 않 고 시간 맞추어 문제를 풀면서 수강했으며, 강제성을 부여하는데 쓰기스터디 활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전 GS B를 수강은 6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실전 A를 통해 감을 잡아놓고, 시작할 수 있어 좋았고, 실전 B를 통해 실전 연습을 하고, 동시에 놓쳤던 논점들을 메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통합 회독 하던 2-3월 기간 외에는 늘 암기노트로 회독을 병행하며 위의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시험 직전까 지 암기노트를 총 8-9회독 한 뒤,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례집의 경우 자꾸 헛갈리는 부분만 정리하기 위해 특정 논 점들의 기본목차를 정리본을 만들 때에만 사용했으며, 핸드북도 부수적으로만 사용하고, 공부할 때 거의 활용하지는 않 았습니다.

【회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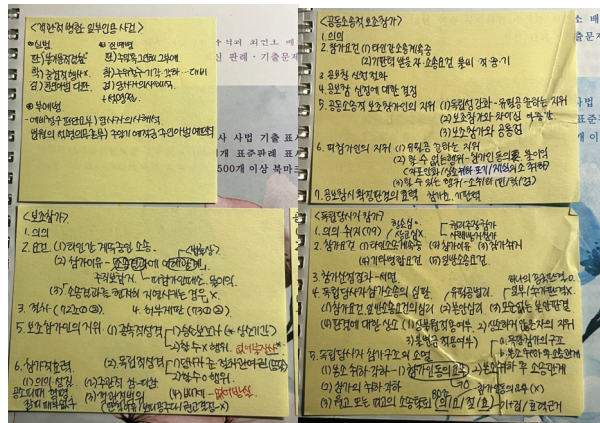
【회독 교재 선택】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교재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은 매우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나, 내용이 많아 저에게는 큰 덩어리를 잡아가며 읽기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첫 회독 뒤에, 비교적 간결하게 적힌 암기노트로 큰 그림을 잡고 난 뒤 나중에 다시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통합으로 바꾸기에는 (1)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2) 암기노트로도 충분히 GS를 푸는데 이상이 없다고 느꼈기에, 암기노트를 온전히 체화하고 담아가기로 결정하여 암기노트를 주 교재로 활용했습니다.

GS에서 암기노트에 아예 없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추가해서 '시험 때까지 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기에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고, 사실 동차생으로서 암기노트 내용만 완벽히 암기하는 것도 적지 않은 양이기에 저는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회독 방법】

기초 GS를 쓰고, 실전 A를 들으면서 회독을 하니, 어떤 식으로 답안지에 활용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고, 실제로 출력 가능하게 암기하면서 회독을 하려고 했습니다. 목차를 확인해가면서 회독을 해야 흐름을 잡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대목차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의 논점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며 읽어나갔습니다. 몇몇 파트는 포스트잇에 교재 목차를 모아 적어서 표지에 붙여두었는데, 읽으면서 정리하니 기억도 더 잘 나고 여러 장의 내용이 간결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재엔 형광펜 표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열은 형광펜으로 한 논점 아래 학판검은 묶어서 표시하고, 흩어지지 않게 읽으려고 했습니다. 뼈대가 되는 목차들은 강한 노란색 형광펜으로 체크해 굵은 가지를 확인하려 했고, 키워드가 되는 학설 이름이나 키워드에는 다른 색의 형광펜을 활용해 표시해가며, 틀과 내용을 함께 잡아가며 회독했습니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판례 상황 설명이나, 누락했던 논점같은 경우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기타 밑줄이나 표시는 그냥 특별한 규칙 없이, 읽으면서 강점을 두어야겠다는 부분이나, '최소한 이 부분은 현출되어야 한다'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해두었습니다.

동차기간 동안 민사소송법의 부담이 컸어서, 민소 회독에 항상 하루 6-7시간(+@)의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암기 방법】

별로 암기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지는 않았고, 회독과 동시에 암기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중요한 내용, 즉 GS에 현출해야 할 부분들, 반복되는 부분들 위주로 암기를 하면서 점점 다른 내용도 암기해나갔습니다. 회독이 반복될수록 암기는 덧바르기가 되어서, 회독과 동시에 암기를 진행해도 회독 속도가 많이 느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내가 지금 그냥 읽고 있는 것인지, 암기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넘어갈 때마다 전 페이지 내용은 다 까먹는게 아닌가, 방금 읽은 것도 막상 문제 나오면 아무것도 못쓰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곤 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회독기간이 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부분에서 너무 오래 묶여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더 외우자' 하거나, 혹은 '빨리 한 회독 다 하고 돌아와서 또 얼른 외워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귀가 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면, 공부시간에 암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특허법- <점수: 52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박형준 변리사님 기초 GS Plus, 최신판례강의, 사례강의(일부), 실전 GS B
- 교재
박형준 변리사님 준특허법 Plus (암기자료로 총알- 보조적으로 활용)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기초 GS Plus	기초 GS Plus		실전 GS B

【시기별 공부】

[기초GS Plus (3-4월)]

저는 1차 때 특허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보단 객관식에서 답을 맞출 수 있도록만 공부했었습니다. 이에 기초 GS Plus에서 더 깊이있는 개념 습득과 암기에 집중했습니다. 주말에는 GS를 쓰고 수업을 듣고 평일에는 준특허법 Plus 책으로 매주 진도 범위를 한 번씩 더 복습했습니다.

한 주를 <월요일은 GS 복습/ 화, 수, 목은 지난 주말 진도 범위 스스로 회독/ 금, 토는 다음날 GS를 위한 암기>의 루틴으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GS 범위를 암기할 때에는, (1) 먼저 총알로 전체 진도범위를 다 암기한 다음, (2) 준특허법 Plus 교재로 넘어가, 출제 논점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암기를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GS에서는 절대 책을 보지 않고 쓰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일요일 GS는 전날 배운 내용을 바로 써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었는데, 토요일에 역삼에서 집에 오는 길 버스에서 총알로 진도 범위 암기를 하고, 집에 와서 준특허법 교재로 논점 부분 암기 보충을 하면서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5월]

대부분 공부의 순서가 민소>특허>상표 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 시기에 상표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라 특허법이 뒷전이 되었습니다. 다만 실전 GS B 개강 전에 대학교 특강 때문에 바로 특허 풀 답안을 작성해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일주일 정도 잡고 부리나케 총알을 하루 10장 정도씩 암기하면서 다시 특허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 특허법 공부를 아예 안한 것은 아니나 공부시간 등이 불규칙했어서, 이 시기에 총알이나 바주카포 등 간단한 자료라도 꾸준히 암기하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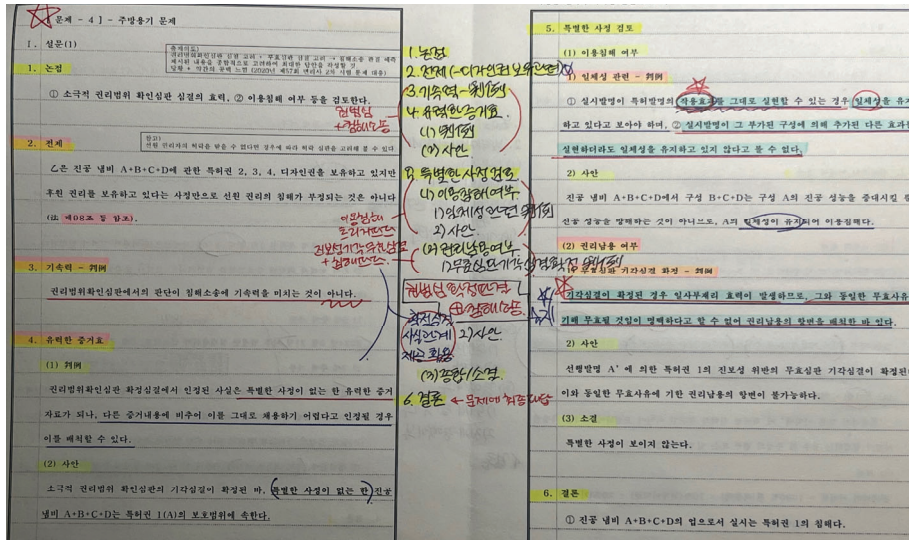
6월에는 실전 GS B와 사례강의 일부, 최신판례강의를 추가로 수강했습니다.

(사례강의) 사례강의는 기출의 러프한 스타일을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허법의 성격상, 사례강의를 통해 당황스러운 문제들에 대응하는 연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례강의를 완강하고자 하였지만, 6월 중 한 주간 개인 사정으로 충분한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어서, 일부(10개년 이내 기출)만 수강했습니다.

(최신판례강의) 최판례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채로 실전 GS B 1,2회차를 써보고, 최신 판례 법리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GS를 푸는 것은 실전 연습이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수강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했을 때, 이틀정도면 큰 시간 소모 없이 수강 가능한데, 이후로 실전 GS B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기에, 꼭 추천드리는 강의입니다.

(실전 GS B) 최신판례강의 수강 후 부터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전 연습+최신판례 답안작성 연습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신판례를 아는 것과, 그것으로 배점 등에 맞게 답안을 구성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GS에서 그 연습을 해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실전GS B 수강하면서는, **준특허법 교재로 회독&암기를 병행**했습니다. 역시 월요일은 GS 복습을 했고, 화수목금은 개인공부를 했습니다.

GS복습시엔, 각 문제 강사님 답안 읽어가면서 누락 내용 체크하고, 각 판례들이 문제의 어떤 트리거에 떨어져 나온건지 확인하고 필기했습니다. 또, 각 설문/문항별로 다시 복습해야할 것들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표시해주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실전 GS 복습하면서 적어둔 내용입니다.



【회독 방법】

개별 판례의 암기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곳에 적절한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조를 잡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적지 때문에, 위치를 의식적으로 파악하며 읽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회독할 때는 각 판례의 위치와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판례를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나치게 깊이 파고들기보다 일단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것이 더 수험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독과 동시에 암기를 하고 넘어가려 해서 속도가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총알**을 잘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알로 빨리 암기를 한차례 해결하고 난 뒤에 기본서로 넘어와 회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진행된 암기에 덧붙듯 회독하며 외우는 것이 되어 기본서 회독의 속도가 늘어지지 않고, 강약조절하며 부수적인 내용을 보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암기 방법】

두문자 암기, 문장 자체로 암기하려는 방식, 키워드 암기 모두 혼용해서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두문자들은 강의에서 변리사님께 몇 번 듣다보면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합니다. 높은 현출도가 필요한 판례같은 경우 처음에는 그냥 문장 자체로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요한 부분 부분이 남고, 그 위주로 문장 구성해서 쓰게 됩니다) 많이 긴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의 논리 구조로 덩어리를 뜯어서 암기했습니다.

특허법은 특정 논점에서, 기본 목차 묶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그 목차도 두문자로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준특허법 Plus로 회독과 동시에 암기를 진행했고, 각주 내용은 눈에 담는 방식으로, 시험 때 나오면 '어, 이거 봤는데' 하면서 떠올릴 수 있게 하자는 목표로 자주 보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총알은 빠르게 일정 범위를 훑어 전체적인 암기를 짧은 시간 내에 끝내야 할 때 활용했습니다.

-상표법- <점수: 55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한경훈 변리사님 기초GS Plus, 판례강의, 실전 GS B

▪ 교재

한경훈 변리사님 점, 선 (가장 주 교재는 점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피날레는 기초GS Plus 시기 부교재로만 활용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기초 GS Plus	기초 GS Plus	실전 GS B (+실전 GS A 일부)	

【시기별 공부】

[기초 GS+]

먼저, 기별 때는 무조건 암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기간으로 가져가길 추천드립니다. 월~토의 공부 루틴은 특허법과 같이, <GS복습(월)-진도범위 기본서 회독(화수목)-다음날 GS 범위 암기(금토)> 로 보냈습니다

기별 수강하는 동안에는 매주 암기해야 할 범위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암기집 중 표시된 내용은 전부 달달 외우고, 출제 되는 판례, 피날레 목차도 확인하고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상표 역시 처음부터 책 안보고, 시간 맞춰 제출하기를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기별을 수강하면서 이렇게 암기를 짝짝 담아 두어야, 실전 GS에 넘어갈 때 그 암기한 내용을 문제에 활용하기 좋고, 전체적인 목차와 구성 아래 정리하게 되면서 실력 향상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판례강의]

저는 기초 GS Plus가 끝나가는 무렵 판례강의를 추가로 수강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빠르게 전체 판례를 한바퀴 돌릴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강의를 들은 뒤에, 강의 내용 떠올리며 점 교재와 함께 2, 3번 스스로 회독할 때 판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차생분들이 판례강의를 수강하신다면, 강의 자체는 배속해서 빠르게 이해하며 들으신 뒤, 꼭 스스로 강의 내용을 떠올려가며 복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GS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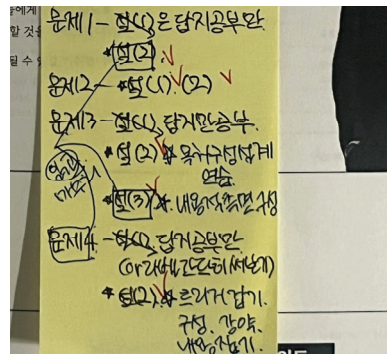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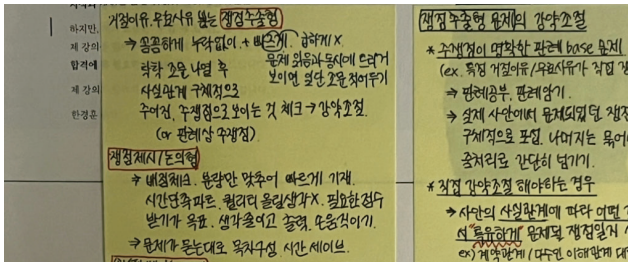
상표법 실전 GS B는 첫 실전 GS 경험이었는데, 저는 이 시기에 답안지 작성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일에 실전 GS A를 한 3회차 정도를 추가로 풀었습니다. (시간 관리 문제를 해결 방법은 아래 답안 작성 관련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실전 GS에선, 해당 과목의 공부 외에도 전체 시험에 적용 가능한 답안 작성 방법과 시간 운영 연습 등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경훈 변리사님 실전 GS B 수강하면서, 최신판례 연습용 문제와 현장 대응 연습용 문제가 적절히 섞여있는 것 같아 상표법 시험 준비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동시에 전 과목에 적용 가능한 시간 관리, 전체적인 답안지 작성 연습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GS 복습】 (특허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습)

- * 답안 해설 보면서 **누락 부분 체크, 포섭 문구 확인** 등 개별 내용과 목차 구성 확인
- * 각 문제에서 목차 쪼개기 등 강사님 답안의 구성 스킬 메모
- * 매 회차마다 다시 **복습 필요/불필요한 설문 구분**해서 메모, 각 **설문 별로 공부 용도** 적어두기 (=> GS 회독시 시간 절약)

* 각 회차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GS 표지에 포스트잇 정리. (나중에 이걸 모아서 여러번 보았습니다)



【회독 방법】

【회독 방법- 목차집 활용 적극 추천】

주 교재는 점 교재로 활용했습니다. 암기를 기별 시기에 한차례 끝내고 넘어와, 점 교재로 회독&암기하면서 공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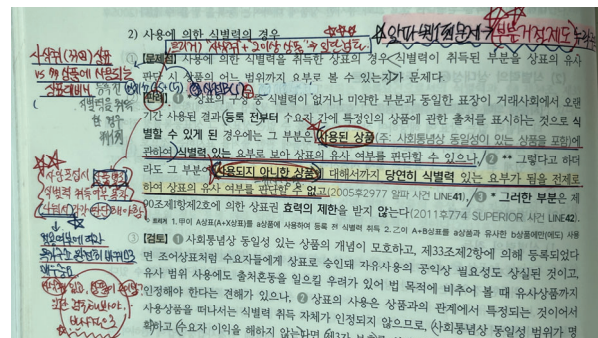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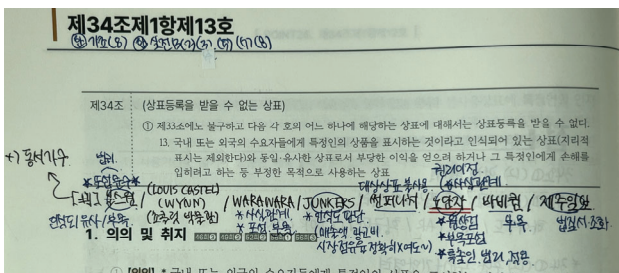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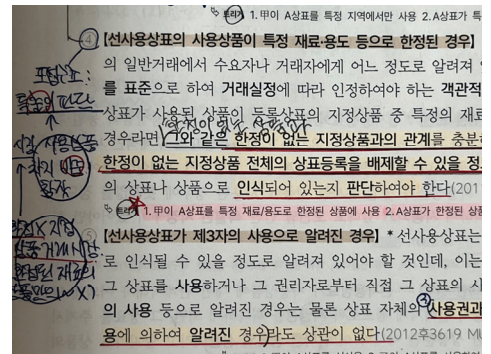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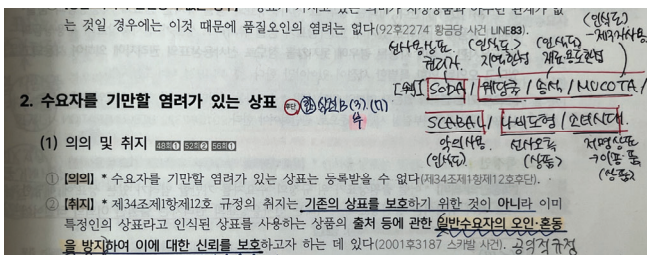
점 교재 회독을 할 때 **목차집**을 함께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목차집이 결국 답안의 기본 틀이 되고, 그 목차의 내용들에서 매 문제들마다 필요한 것만 넣고 빼고 하기만 하면 깔끔한 답안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목차집을 항상 옆에 두고 보면서, 각 내용을 목차 아래 달아놓는다는 느낌으로 회독을 하다보면, 답안지에 공부 내용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재 활용】

저는 점 교재에 판례, GS 등 모든 자료들을 단권화하려고 했습니다.

(1) 점 교재와 선 교재는 구성 순서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범위의 판례를 묶어 쪽 읽고,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점 교재 제목 부분에 옮겨적은 뒤, 점을 회독하면서 두 교재를 단권화했습니다. 판례의 간단한 포섭의 논리 흐름을 옆에 같이 기재 하기도 했고, 이와 같이 점 교재만 보더라도 판례를 떠올려 줌과 같 수 있도록 정리하려 했습니다.

(2) GS의 경우 출제 표시를 점 교재에 세세하게 해두었습니다. 또한, 반복해서 누락하는 부분 등은 따로 필기해두기도 하고, 답안지에 어떻게 활용하고 적을 것인지/적절한 라벨/트리거 등을 적었습니다.



【암기 방법】

가장 빠박한 암기는 기쁠 때 끝내고, 실전 GS 와서는 특별히 부족한 부분만 힘을 쓰고, 그 외의 부분은 가볍게 암기를 덧바르는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암기에 압박감을 느낀 것은 기쁠 시기였고, 이후로는 암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소모하지도, 힘이 많이 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암기력을 확 올려두면, 그 암기 내용을 한 번 두 번 더 덧바르는 데에는 그 정도의 어려움이 수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초반에 힘드시더라도 밀도 있게 암기를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상표는 각각의 판례 사건에서 실시한 법리들이 어떤 연관이 있어 함께 세트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리적인 구조나 흐름을 확인하며 읽으려 한 것이 암기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점수: 60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김웅 변리사님 실전 GS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실전 GS

【시기별 공부】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여 5월에도 디보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30분씩 보려고는 했지만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6월에는 ‘이러다 선택탈하겠다’ 라는 위침감이 들었고, 실전 GS수강, 기본서 회독과 암기를 했습니다. 이 때 실전 연습보다는 당장 암기가 중요하다 느껴, 전반부 몇 회차는 그냥 기본서를 보고 쓰고 복습하며 한 번 더 외우는 방식으로 GS를 활용했습니다. 여러번 내용이 반복되면서 암기가 받쳐주기 시작한 중후반부 회차부터는 안보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독 방법】

5월에는 아침에 30분씩만 회독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고, 6월에는 실전GS와 동시에 빠르게 회독하면서 암기를 동시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법전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조문만 보고 빨리 넘어가고, 자주 출제되거나 중요한 판례는 잘 외워가며 회독했습니다.

【암기 방법】

법전으로 해결 가능한 내용과 법전으로 해결 불가능한 판례 내용을 잘 구분해서, 법전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들 위주로만 암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선택과목에 투자할 시간도 부족하고, 불필요한 뇌 용량을 여기에 투자하기엔 매우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공부를 추구해도, 충분히 패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0페이지	약 20-25자	목차 사이에 엔터 O	세로 폭의 2/3 정도
특허법	22페이지			
상표법	20페이지			
디자인보호법	19-20페이지			

【글씨 노하우】

처음에는 글씨가 길고 자간이 좁은 편이었는데, 힘이 들어가 필속이 느리고 분량 조절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어 수정하려 했습니다. 기존에 글씨 때문에 고민이 많지는 않았지만, 글씨 크기를 키워도 보고 흘려써보기도 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려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는 좀 흘려쓰게 되었었는데, 글씨체가 아주 예뻐야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읽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용한 펜】

에너젤 0.7 사용했습니다. 제트스트림도 같이 사용해보았는데, 에너젤이 제 필체나 펜 잡는 방식과는 더 잘 맞고, 비교적 굵고 부드럽게 써지는 점이 편해서 사용했습니다.

막 절대적으로 좋은 펜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몇 가지 펜을 바꾸어 써보며, 초반에 자신의 필체와 펜 잡는 방법에 맞는 펜을 찾아서 정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저는 문제별로 40-20-40-20으로 시간 분배를 했고, 미리 목차 잡는 것은 기초GS까지는 어느정도 했었는데, 이후에 기본적인 답안 구성이 익숙해진 이후에는 별도로 연습지 활용 없이 그냥 바로 답안지에 풀었습니다.

【목차 잡기 관련】

목차는 사고 과정을 크게 크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판단들을 대목차로 쓰고, 그 아래에 소목차를 통해 관련 법조문/판례/사안적용을 적어가는 등,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각 단계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결론까지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을 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들만 깔끔히 적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목차를 적을 때는 주체나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포함해서 적어 문제 푼 티를 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시간 운영 관련】

GS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시간이 다 되면 무조건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한동안은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상표법 실전GS A를 연습용으로 더 풀어본 것 역시 이 때문이었습니다) 시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 앞 문제에서 지나친 완성도 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를 각각 짧은 호흡으로 끊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1, 2, 3, 4를 각각 나누어, 타이머로 40분, 20분씩 끊어서 하루에 한두 문제씩 풀고, 그 다음엔 1&2번, 3&4번을 묶어 각각 1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수강 중인 실전 GS에 와서는 2시간 안에 전체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했고, 이때부터 시간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각 문제에 정해진 시간을 진짜 제한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첫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를 풀 듯이 푸는 연습을 해야 시간 내에 완성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풀지 못해 미완성인 답안지의 완성도는 아무리 높여도 결국 미완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성도와 퀄리티를 올리는 것은 완성을 먼저 시간 "뒤"의 문제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목별 전략】

민사소송법

빠르게 GS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통합 민사소송법을 회독한 기간이 동차분들께서 기본강의를 듣는 기간과 거의 다름이 없었다고 보시면, 충분히 적용 가능한 커리큘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초GS를 풀면서 기본서 회독과 암기에 대한 감을 잡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월에 실전 A를 풀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경험을 6월이 되어야 처음 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미리 듣기 시작하고 실전B 에서는 본격적인 연습을 더 할 수 있어 많은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외에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전략이 있었다기보다는, 기본서 회독+ 논점에 따라 정직하게 암기하고 출력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상표와 특허는 민사소송법에 비해, 현장 대응과 소설쓰기가 중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때에는 내가 진짜 그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대리인이라면 어떤 근거를 들어가며 주장할 수 있을지 상상하며 답안을 썼습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게 중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사고하고 적어야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임기응변, 대응하는 것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문/짚돌 문제처럼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 '나만 모르는 거 아니고, 다 같이 모른다' 생각하고, 시간 내에 배점 맞춰 분량만 채우자, 하며 챙겨가는 연습을 GS에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시간 관리】

순공 시간을 측정했을 때 4월쯤까지 8-9시간정도, 5월부터 9-10시간, 6월은 10시간 +@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인 7월에는 12-13시간 정도로 늘렸던 것 같습니다. (8-9시 출석/11-12시 퇴책)

절대적인 시간이 몇 시간인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대라고 생각한 시간에서도 웬만하면 더 내면 낼 수 있는게 시간이라, 만약 자신이 현재 공부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면, 아침에 30분만 일찍 오거나 식사시간 줄이는 식으로, 전체 공부시간을 더 확보해서 공부를 추가하는 방식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단순 암기같은 부분은, 사전을 찍어 두었다가 이동시간에 보는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합불 같은 결과에 대한 생각보다는, 당장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GS 성적에 있어서도, 그 자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못 나왔다면 '뭐 때문에 못나왔지?' '그럼 이걸 보완하려면 뭘 해야할까?'하는 고민을 하고, 그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한 공부를 하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더라도, 열심히 해온 시간을 생각하며 불안함을 가라앉히고, 또 동시에 평소에는 그렇게 자신이 보내온 시간을 믿을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면서, 제게 기득이라는 또 한번의 기회가 있다는 점에 대해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당장 눈 앞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봐야 하고, 그러면 잘 봐야 한다는 점만 생각했었습니다. 기득 이상의 수험생분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 촉박한 시간 때문에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차는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 합리화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 장소】

1차는 집/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2차는 대부분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했습니다. 편한 곳이라면 공부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공간에서 계속 공부하다가 집중이 잘 안될 때에는 가장 부담없이 바꿔볼 수 있는게 공부장소 같습니다. 리프레시되는 느낌도 받고 그 늘어지던 패턴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될 수 있어서, 슬럼프가 오시거나 집중이 잘 안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 번씩 바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터디】

1차 기간은 스터디를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줌스터디를 잠깐 해보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차 기간에는 **민사소송법 실전 GS A형 쓰기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원이 있어 중도에 멈추지 않고 쓸 수 있었고, 저와 다른 스타일의 답안지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하면 개인 공부에 제약과 통제가 생기는 부분이 불편해 잘 활용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동차생이시라면 2차 쓰기만은 스터디를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는 **출퇴책 인증 스터디**도 했는데, 출석은 시간을 9시로 정해놓고, 퇴책은 하루 공시 인증과 함께 자유롭게 진행했습니다.

【휴식】

4월까지의 일요일 오후에 GS가 끝나면 완전히 휴식했고, 월요일에는 점심 식사 후 도서관에 가서 GS 복습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는 주말 모두 GS 당일 복습을 했고, 월요일에는 편하게 늦잠자는 날을 가졌습니다. 6월에는 3GS를 했고, 6월 초에는 월요일에 늦잠만 자고 오전부터 공부를 시작하다가, 6월 중반부터는 따로 쉬는 날 없이 공부했습니다.

【윌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동차분들께도 상표법에서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판례강의**는 수강해보시길 추천드리고, 특허법에서는 박형준 변리사님의 실전 GS B 이전에 **최신판례강의**를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실제 문제 풀이와 대응 연습을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사례강의를 전 범위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만큼은 수강해보시면서 목차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올해 합격할 수 있었던 것에는 운도 많이 따라주었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변리사 시험을 준비해 보고 싶다는 저를 믿고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험기간동안 공부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늘 힘들진 않을지 헤아려주고 따뜻하게 기다려준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수험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가까이에서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 준 친구들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상표법의 탄탄한 공부와 답안지 틀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세세히 도움 많이 주시고, 힘이 되는 조언도 많이 해주신 한경훈 변리사님, 특허법을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질문들에도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신 박형준 변리사님,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양질의 교재, 강의를 제공해주시고 가르침에 힘써주신 이창한 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이 모두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이 길을 선택해 진입하기로 결심하신 분들, 계속 노력하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을 존경하고 또 응원합니다. 보내오신, 그리고 보내고 계신 모든 시간들과 노력 자체만으로도 정말 멋있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만큼이나 매 해의 운도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라는 점이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묵묵히 걸어오신 만큼 결정적인 순간에 운도 함께 따라주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nykimra@naver.com 으로 메일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